

제72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0월 1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0월 1일 상오 11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 전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 및 과장전원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1. 제71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제71회 제2차 회의록 통과

3. 해양고등학교 운영진정 결과 보고

4. 신성모씨 교섭관계

5. 중앙 교섭 관계

나. 부의안건

1. 의회부의장 선거의 건
2. 각상임 위원장 호선의 건

다. 토의사항

※ 제71회 제1차 회의록 통과

박찬대 서기 낭독

◇정 응 표 의원

- 김남진 의원의 발언에 뒤이어 본 의원이 즉시 선거에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였는데 누락되었다.

◇박 찬 대 서기

- 즉시 삽입 후 기타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71회 제2차 회의록 통과

박찬대 서기 낭독

◇강 영 락 의원

- 제2차 회의시 이의원의 6인이 퇴장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착오일 것이다. 분과 위원회 개최도중 임석희 의원 불의의 봉변으로 인하여 불참하였던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본 의원의 발언에도 중요 골자가 누락되었다.

첫째, 의회 해산결의안이라는 것은 어느 법적 조문에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과 그 결의안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소방세 조례통과 당시 조건부 해명에 대한 발언이 기재안 되어 있는 점이다.

◇박 찬 대 서기

- 양 의원의 발언 각각 수정 혹은 삽입 후 그 외 이의 없음으로 통과

※ 해양고등학교 운영상황지정 결과보고

※ 신성모씨 교섭관계

◇김 경 인 의원

- 금반 신성모씨의 내목을 계기하여 상면의 기회를 얻어 본 건에 대하여 진언한 바 있었는데 신성모씨의 말씀은 이번에 내목하게 된 것은 해양고등학교 운영상황을 조사차 온 것이 아니고 타용무이었으나 해무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받았으며 당시 해무청장과도 여객선조 및 어업조합조 등 극력 중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명 남 철 의원

- 금반에 본 의원이 상경하여 문교당국과 절충한 바 있었는데 피복비, 장학비, 급식비등 91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무난히 통과되리라는 예측으로 낙관적이었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제71회 의회 석상에서 본 의원의 동의로서 해양고등학교 관계에 대하여 중앙요로에 건의문을 발송하자는 결의가 채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보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 총무과장

- 본 건 해양고등학교 측과 건의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교환 중에 있음으로 아직 완성이 못되어 지연되었습니다.

◇김 창 희 의원

- 금반 대홍사행에 대한 동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야당의원들이 의회 해산결의안이란 몰상식한 벽보선전으로서 옥쇄 운운의 인기전술을 감행 한데 대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찬조발언과 아울러 목포 시내 발행의 주간 및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소속의원 박두순 의원, 기경인 의원은 술을 목포서 갖고 가는 것보다는 해남서 사는 것이 더 편리하니 그렇게 하자고까지 발언한 사실들이 인기전술과 사기를 하였음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치와 신의를 혼동시 하지 말고 인간성에 대한 변절 없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장내 소란

◇김 삼 성 의장

- 폐회선언

(상오 11시 30분 현재)

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0월 2일

시의원 김상대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